

▶ 설 명절 전주 곳곳에 문화 체험행사 한가득

‘매양 추위 속에/해는 가고 또 오는 저지만/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오 늘 아침/따뜻한 한 잔 술과/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그 것만으로도 푸지고/고마운 것 이라 생각하라/세상은/힘난하 고 각박하다지만/그러나 세상 은 살 만한 곳...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한 해가 가고/또 올 지라도/어린 것들 잇몸에 돌 아나는/고운 이빨을 보듯/새 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세시풍속 즐기고... 부채도 만들고... 넉넉함을 가족과 함께

김 종길 시인은 '설날 아침에'라는 시에서 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설날, 새삼스럽게 인생살이의 각박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더 나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 그것을 긍정적·희망적 삶의 계기로 삼자고 노래한다. 우리네 삶도 그의 시처럼 소소한 일상의 기쁨으로 채워가며 지혜롭게 영위해 감은 어떨는지. 설을 맞아 전주 곳곳에선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전주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을 마련한다. 행사는 설 연휴기간 휴무 없이 진행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전통놀이체험은 투호 던지기,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와 중국·일본·인도의 다문화 전통놀이를 선보인다. 무술년 개띠해 특별전에선 '개와 인간의 시간' 관람과 함께 한복을 입고 박물관에 방문한 가족에게 즉석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가족 기념촬영은 1일 50가족씩 선착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띠해 특별전 관람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 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개띠 관람객 상설체험료 할인을 진행하며, 환갑을 맞은 개띠 관람객에게는 선물을 증정한다. 매일 오후 2시에는 설 특선영화 'UP'과 '인사이드 아웃'이 상영된다. 문의 228-6485.

【전주부채문화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설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평창올림픽기념 태극머리띠 만들기과 부채그리기 유료체험을 비롯해 야외전시-명화 속 부채이야기, 전통놀이 한마당 프로그램은 설(16일) 당일을 제외한 15일~18일 진행된다. 명화 속 부채이야기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풍속화가 김홍도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채. 그림 30여점과 관련 글귀를 함께 전시한다. 전통놀이 한마당에선 부채모양으로 그려진 사방치기를 비롯해 삼모돌리기·제기차기·딱지치기·투호던지기 등을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문의 231-1774.

【전주소리문화관】은 특별공연·민속놀이·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된 '복 나와라 뚝딱'을 진행한다.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내내 전주소리문화관 놀이마당에서는 대형 윷놀이, 투호, 고리던지기, 바나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린다. 이와 함께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매주 토요일 5시에 예 진행되는 '세상의 소리 전주의 소리'에서는 관소리·산조·무용·전통연희 등 다양한 우리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으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일요일 오후 2시 놀이마당에선 전주소리문화관을 찾은 모든 방문객들과 함께하는 설맞이 특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231-0771.

【전주한복문화관】은 17일 '설맞이 문화행사-전주한복문화관에 어서오시개'를 선보인다. '가족대항윷놀이'는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한 16개 팀이 토너먼트 식 경기방식으로 윷실력을 겨루게 된다. 1위에서 4위까지의 우승자에게 가정용청소기, 핸드블렌더 등 생활가전 상품도 증정한다. 조리 체험 프로그램인 설날 떡국 만들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한 40인에 한해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우리들이 알아야 할 명심보감 문장들을 전통관소리 춘향가·흥보가·심청가의 이야기로 풀어낸 소리보감 5색樂과 새해를 축원의 의미를 비나리로 기원하는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사일 12시부터는 무술년의 행운과 재복을 바라는 의미로, 강이지모양 저금통을 218개 한정 무료로 나눠준다. 문의 280-7042.

【최명희문화관】은 설 명절의 넉넉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채롭고 풍성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복다복-흔불 문장 뽑기'는 소설 '흔불'에서 가려 뽑은 문장이 들어 있는 '학알'을 선 택하는 는 프로그램으로 삶의 이정표가 될 한 명문을 만날 수 있다. 소설 '흔불' 속 설 명절과 관련한 부분을 소개하고, 최명희 취재수첩 길광원우 만들기와 흔불 필사하기 등의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문의 284-0570. /정해은 기자

군산의 역사·문화 즐기러 가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날 한마당 큰잔치' 운영
15일부터 18일까지... 전통체험·공연 등 다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에서는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설날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설 연휴기간(15~18일)에 한복을 입고 박물관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설 당일(16일)에는 박물관을 무료 개방한다. 설 당일인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떡메치기 등 8개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근대박물관 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인절미와 전통차를 제공해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16일 오후 1시30분부터는 소담소리아트(대표 김금희)의 흥겨운 소리, 흥겨운 우리가락 민요공연이 두 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17일과 18일 오후 2시부터는 타악공화국 흠소리(대표 박문기)의 사물놀이 공연을 각각 2차례

씩 진행하여 축제의 흥을 한층 돋을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근대기 서화기 황씨형제전'이, 근대미술관에서는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었던 故하반영 화백의 '어머니의 장생(長生)'외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박물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을 통하여 가족 간 화목을 다지며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해맞이 설날 한마당 큰잔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gun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BBC 다큐
'지구: 놀라운 하루' 15일부터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24시간 동안 지구 곳곳에서 살아 숨쉬는 다양한 동물들과 생동감 넘치고 장엄한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아낸 BBC 제작 다큐멘터리 '지구: 놀라운 하루'를 15일부터 상영한다. '지구: 놀라운 하루'는 24시간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동물들과 자연이 펼치는 기적 같은 풍경 등을 포착한다. 총 제작기간 1,085일, 촬영기간 142일이 소요된 작품은 제작진들이 22개국을 돌아다니며 촬영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풍경들을 완성도 있게 촬영하기 위해 무려 200대의 드론이 활용되는 등 최고의 카메라 기술이 동원됐다. 특히 다큐 역사상 최초로 희귀종 생물인 흰머리 람구르 원숭이 등 38종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특별히 국내 개봉본전은 배우 이제훈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하여 이색적인 풍경을 친숙한 목소리로 소개하게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확인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마당 2월 백제기행... 근대문화유산 만나러 서천·장항으로

(사)마당의 2월 백제기행은 근대문화유산과 자연의 신비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서천군을 찾아 서해의 아름다움을 담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24일 출발하는 이번 기행은 1930년대 건립된 장항 미곡창고가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세계 5대 기후를 느낄 수 있는 국내 최대 생태 전시관인 국립생태원, 그리고 서해바다 수산물의 팔딱거림에 눈과 입이 즐거운 서천특화시장을 찾아가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은 1931년 장항선 철도 개통을 계기로 곡물 출항 항구로써 더욱 비중이 커지면서 세워진 쌀 보관 창고 건물이다. 일

제시대 일본으로 실어갈 쌀을 저장하던 미곡창고는 이제 그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채 문화·생태·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 했다. 함께 둘러보는 국립생태원은 한반도의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온실에는 1,900여 종의 식물과 230여 종의 동물이 21,000평방미터의 온실에 전시되고 있다. 기행 참가자는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마당 기획팀(273-4823) 또는 마당 홈페이지(http://jomadang.com) 여행상품 예약 코너에서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